

1.글로벌 채권

* <뉴욕 채권> 재향군인의 날(Veterans Day)로 채권시장 휴장

[미국]

2y 0.92% (+0.0bp)

5y 1.55% (+0.0bp)

10y 2.14% (+0.0bp)

30y 2.94% (+0.0bp)

[기타 10Y물]

영국 1.36% (+2.2bp)

독일 0.31% (+3.4bp)

프랑스 0.74% (+6.9bp)

이탈리아 2.02% (+12.2bp)

스페인 1.47% (+8.4bp)

그리스 7.03% (-9.7bp)

2.글로벌 증시

* <뉴욕 마감> 숨고르기 장세 속 혼조 마감

* 다우존스산업평균 지수,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... 주간 기준으로 약 5년 만에 최대 상승 폭
- 최근 급등했던 헬스케어 업종이 차익실현 매물 영향으로 하락했고 주요 광물 가격이 급락하면서
원자재 업종도 부진하면서 혼조세로 마감

* 연방준비제도이사회(FRB) 스탠리 피셔 부의장, 예상을 갠 도널드 트럼프 당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
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

- 물가와 고용 두 가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임박했다며 '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
근거가 꽤 강하다'고 밝힘

* 석유수출국기구(OPEC), 지난 10월 하루 산유량이 3365만배럴로 집계... 9월보다 24만배럴 늘어난 것
으로 역대 최고 수준

- 美 원유시추기 가동 건수가 증가한 것도 공급 과잉 우려 증폭

* <유럽 마감>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국제 유가 급락 영향으로 혼조세... 독일 DAX 지수만
알리안츠와 폭스바겐 강세에 힘입어 0.36% 상승

* <상하이 마감> 트럼프 당선 충격 완화와 원자재 관련주의 강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상승... 중국판
블랙프라이데이 '광군제'가 시작되면서 유통업계 호황

* <도쿄 마감> 금융주가 강세를 달린 가운데 상승...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영향으로 상승 압력을 받는 일부 업종이 증시를 견인하는 모습

DOW30	18847.66	(+0.21%)
NASDAQ	5237.11	(+0.54%)
S&P500	2164.45	(-0.14%)
NIKKEI225	17374.79	(+0.18%)
SHANGHAI	3196.04	(+0.78%)
FTSE100	6730.43	(-1.43%)
DAX30	10667.95	(+0.36%)
CAC40	1189.27	(-0.92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성장 촉진 기대로 뉴욕증시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로 높아졌음에도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세에 혼조

- 파운드화,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렉시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달러화에 대해 1.26733달러로 올라, 약 한 달래 최고치를 기록

유로/달러	1.0847	(-0.0039)
유로/엔	115.77	(-0.63)
달러/엔	106.73	(-0.19)
달러/위안	6.8115	(+0.0230)
파운드/달러	1.25971	(+0.00527)
NDF	1166.00 / 11167.00원...1.25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하락

* <국제 금값>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부양 정책 기대 등으로 하락

WTI	43.41	(-2.8%)
COMEX금	1224.30	(-3.3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	1984.43 (-0.91%)
코스닥	621.89 (-0.22%)
원/달러	1164.80 (+14.20)
KTB	110.00 (-0.18)
LKTb	127.45 (-1.16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한국 채권&주식&환율 트리플액세가 연출되면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.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되었지만, 시장안정에 대한 힌트를 찾지 못한 채 외인의 선물 매도에 힘없이 끌려감.

CD(91d)	1.3900%	(0.00bp)
1y	1.4520%	(+2.60bp)
3y	1.5080%	(+4.30bp)
5y	1.6700%	(+8.30bp)
10y	1.9380%	(+11.90bp)
20y	2.0270%	(+9.90bp)
30y	2.0460%	(+9.60bp)
50y	2.0360%	(+9.5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	-7.05bp	(+0.20bp)
2Y	-8.50bp	(+0.60bp)
3Y	-6.30bp	(+0.95bp)
5Y	-14.50bp	(-2.05bp)
10Y	-24.30bp	(-3.65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내 채권금리 급등을 반영하며 상승 마감.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위주로 채권금리 상승에 연동. 커브 스티프닝.

* CRS도 커브 스티프닝.

*IRS 금리

1Y	1.3925%	(+3.00bp)
2Y	1.4050%	(+4.00bp)
3Y	1.4475%	(+5.50bp)
5Y	1.5300%	(+6.75bp)
7Y	1.6025%	(+8.00bp)
10Y	1.7000%	(+8.75bp)

1*2Y	1.25	(+1.00bp)
2*3Y	4.25	(+1.50bp)
2*5Y	12.50	(+2.75bp)
3*5Y	8.25	(+1.25bp)
5*7Y	7.25	(+1.25bp)
5*10Y	17.00	(+2.00bp)

*CRS 금리

1Y	0.9900%	(-1.00bp)
2Y	0.9350%	(0.00bp)
3Y	0.9450%	(+3.00bp)
5Y	0.9850%	(+6.50bp)
7Y	0.9900%	(+8.50bp)
10Y	1.0000%	(+8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- * 11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, 경제에 대한 낙관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... 향후 낮아질 가능성 有
 - 11월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, 전월 87.2에서 91.6으로 상승...조사치(88) 상회
 - 하지만 이번 예비치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됐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경제를 낙관한 것으로 파악
 - * 달러-위안 기준환율, 전장보다 0.0230위안 올린 6.8115위안 고시 (전일 대비 0.34% 가치 하락)... 2010년 9월이후 약 6년 2개월 만에 최저치
 -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위안화 가치 연일 하락세
 - 전일 주요 통화에 대한 美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, 전장보다 0.21% 올라 98.851로 장 마감... 한때 '99'를 넘어서 지난 10월 25일 이후 최고치 기록
-

*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대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는 곧 더 큰 무역 전쟁의 시발점이 될 것 <WSJ>

- 환율조작국 지정은 그 자체로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지만, 상대국과의 교역 협상에 실질적인 걸림 돌이 될 전망. 특히 트럼프가 이를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는 다른 법과 연계해 사용할 경우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

- 이 조치가 중국 수입품을 겨냥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이어지면, 중국도 팔짱을 낀 채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,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가능성까지 거론

-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유권자들 표심 공략 위해 남발한 공약을 이행할 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. 이러한 보복조치가 불러올 후폭풍이 매우 거세다는 점도 공약실행의 또 다른 걸림돌

[국내]

* 우리銀 민영화 성공...한투證 등 7곳 지분 29.7% 인수

* 금통위, 1.25%로 5개월째 금리동결...가계부채 대책·美 FOMC 확인

- "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영향, 미 연준 통화정책 변화 점검"

- "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경로 불확실성 더욱 높아져"

- "수출 감소세 지속, 내수 개선움직임 약화"

* 이주열 "트럼프 당선가능성 과소평가...불확실성 대응"

* 채권시장 "중립적 금통위...장기물 추가 약세 가능"

* 이주열 총재가 보는 금리스프레드..."격차 크지 않다"

* 한은 "국내경기, 대내외 여건변화로 불확실성 높아"

* 금리 급등장에도 여전히 거래 '선방'...스프레드 축소

* 트럼프가 깬 통화간 상관관계...원화 방향은

-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자산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을 일으킨 영향으로 통화 간 상관관계수가 크게 낮아짐

-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서울환시에서 달러-원 환율과의 상관관계수가 0.9 이상을 나타낸 통화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. 두 통화의 상관관계수가 1.0에 근접할수록 밀접한 움직임을 나타냄

주간 예정 지표

11월 14일

[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(BOJ) 총재 연설]

[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]

일본-3분기 GDP(QoQ) (예상:0.2%, 이전:0.2%) / GDP(YoY) (예상:0.9%, 이전:0.7%)

중국-10월 산업생산(YoY) (예상:6.2%, 이전:6.1%)

-10월 소매판매(YoY) (예상:10.7%, 이전:10.7%)

유로존-9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-1.0%, 이전:1.6%)

11월 15일

[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 연설]

[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]

[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]

[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]

[호주중앙은행(RBA) 11월 회의 의사록]

독일-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4%) / GDP(YoY) (예상:1.8%, 이전:3.1%)

-11월 ZEW 경기기대지수 (예상:8.9, 이전:6.2)

영국-10월 CPI(YoY) (예상:1.1%, 이전:1.0%)

유로존-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3%) / GDP(YoY) (예상:1.6%, 이전:1.6%)

-9월 무역수지 (이전:18.4B)

미국-10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5%, 이전:0.6%)

-10월 근원 소매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0.5%)

-11월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(예상:-3.00, 이전:-6.80)

-10월 수출물가지수(MoM) (예상:0.2%, 이전:0.3%)

-10월 수입물가지수(MoM) (예상:0.4%, 이전:0.1%)

-9월 기업재고(MoM) (예상:0.1%, 이전:0.2%)

11월 16일

[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]

[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]

[유럽중앙은행(ECB) 비통화정책 회의]

미국-10월 PPI(MoM) (예상:0.3%, 이전:0.3%)

-10월 근원 PPI(MoM) (예상:0.2%, 이전:0.2%)

-10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2%, 이전:0.1%)
 -10월 제조업생산(MoM) (예상:0.3%, 이전:0.2%)
 -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(예상:63, 이전:63)
 -EIA 주간 원유재고 (이전:2.432M)
 영국-9월 실업률 (예상:4.9%, 이전:4.9%)

11월 17일

[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]
 [재닛 옐런 연준 의장 의회 증언]
 [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]
 [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연설]
 [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연설]
 [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]
 [ECB 10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]

영국-10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5%, 이전:0.0%) / 소매판매(YoY) (예상:5.3%, 이전:4.1%)
 유로존-10월 CPI(YoY) (예상:0.5%, 이전:0.5%)
 -10월 근원 CPI(YoY) (예상:0.8%, 이전:0.8%)
 미국-10월 건축허가 (예상:1.198M, 이전:1.225M) / 건축허가(MoM) (예상:-2.9%, 이전:6.3%)
 -10월 주택착공 (예상:1.155M, 이전:1.047M) / 주택착공(MoM) (예상:7.0%, 이전:-9.0%)
 -10월 CPI(MoM) (예상:0.4%, 이전:0.3%)
 -10월 근원 CPI(MoM) (예상:0.2%, 이전:0.1%)
 -11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(예상:8.0, 이전:9.7)
 호주-10월 실업률 (예상:5.6%, 이전:5.6%)

11월 18일

[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설]
 [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]
 [로버트 카플란 델러스 연은 총재 연설]

중국-주택가격(YoY) (이전:11.2%)
 독일-10월 PPI(MoM) (예상:0.1%, 이전:-0.2%)
 한국-10월 PPI(YoY) (이전:-1.1%)